

유란시아서

<< [제 142 편](#) | [부분](#) | [내용](#) | [제 144 편](#) >>

제 143 편

사마리아를 거쳐서

143:0.1 (1607.1) 서기 27년 6월말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가 커졌기 때문에, 예수와 열두 사도는 텐트와 자질구레한 개인 소지품을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저장하려고 보낸 뒤에 예루살렘을 떠났다. 북쪽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면서 그들은 안식일 동안 베델에서 머물렀다. 여기서 그들은 고프나와 에브라임에서 온 사람들에게 며칠 동안 전도했다. 아리마대와 탐나에서 온 시민들의 무리가 와서 자기네 마을을 방문해 달라고 예수를 초청하였다. 주와 사도들은 이 지역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가르치면서 2주가 넘게 시간을 보냈다. 여러 사람이 하늘나라의 좋은 소식을 들으려고 멀리 안티파트리스에서도 왔다.

143:0.2 (1607.2) 남부 사마리아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사도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많은 편견을 버리는 데 성공했다. 유다가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기는 무척 어려웠다. 7월 마지막 주에 예수와 동료들은 요단 강 가까이, 새 그리스 풍의 도시 파사엘리스와 아켈라이스를 향하여 떠나려고 준비했다.

1. 아켈라이스에서 전도하다

143:1.1 (1607.3) 8월의 처음 절반 동안 사도 일행은 그리스 풍의 도시 **아켈라이스**와 **파사엘리스**에서 본부를 차렸다. 거기서 거의 순전히 이방인 — 그리스인 · 로마인 · 시리아인 — 들의 모임에게 전도하는 첫 경험을 얻었는데, 거의 아무 **유대인**도 이 두 그리스 풍의 마을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로마**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사도들은 다가오는 하늘나라 소식을 선포하는 데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直面)하고 **예수**의 가르침에 대하여 새로운 반대에 부딪혔다. 사도들과 가진 많은 저녁 회의 중 하나에서, 열두 사도가 개인적으로 수고하여 얻은 사람들과 겪은 체험을 되풀이하는 동안, **예수**는 이들이 하늘나라 복음에 반대하는 이유를 주의 깊게 들었다.

143:1.2 (1607.4) **빌립**의 질문은 사도들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이었다. **빌립**은 말했다: “주여, 이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가벼이 여기고 그러한 가르침은 오직 허약자와 노예에게 어울린다 하나이다. 이방인의 종교는 힘세고 튼튼하고 공격적 인품을 얻으라고 북돋아주므로 우리의 가르침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나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고분고분한 무저항자의 허약한 표본으로 바꾸려 하고 그런 자들은 지상에서 곧 멸망하리라 주장하나이다. 주여, 저희는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의 가르침이 하늘같고 이상적이라고 아낌없이 인정하지만 우리를 진지하게 상대하려 하지 않나이다. 당신의 종교는 이 세상에 맞지 않고 사람들은 당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 수 없다고 주장하나이다. 이제 주여, 이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무어라고 이르리이까?”

143:1.3 (1607.5) **토마스, 나다니엘, 열심당원 시몬, 마태**가 내놓은 이유, 하늘나라 복음을 반대하는 비슷한 이유를 듣고 난 뒤에, **예수**는 열두 사도에게 말했다:

143:1.4 (1608.1)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사랑하는 성품을 온 인류에게 드러내려고 내가 이 세상으로 왔노라. 형제들아, 그것이 내 사명이라. 오늘날이나 또 다른 세대에 **유대인**이나 이방인(異邦人)이 내 가르침을 오해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것 하나를 해내리라. 그러나 너희는 신의 사랑에도 엄한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생각이 모자라는 자식의 지혜롭지 못한 행위를 억제하도록 아버지를 때때로 재촉하느니라. 지혜롭게 사랑으로 아버지가 징계하는 그 동기를 자식이 반드시 이해하지는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내 **아버지**는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영 실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라. 진실은 사람을 해방하는 계시이지만, 사랑은 최상의 관계이라. 너희 동료 인간들이 오늘날의 세계를 관리하면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든 상관없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는 복음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 인간의 진보가 이를 궁극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경건하게 인식하는 것과 사람이 형제임을 사랑으로 실현하는 것이라.

143:1.5 (1608.2) “그러나 내 복음이 겨우 노예나 허약자에게 주려고 의도한 것이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렀느냐? 너희, 내가 뽑은 사도들이 허약자를 닮았느냐? **요한**이 허약자 같더냐? 너희는 내가 두려움에 노예가 된 것을 보느냐? 이 세대의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이 복음을 전도받은 것이 참말이라. 이 세상의 종교들은 가난한 자를 소홀히 여겼으나, 내 **아버지**는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 게다가 오늘날의

가난한 자는, 뉘우치고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라는 부름을 먼저 주목하는 자이니라. 하늘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 —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인과 로마인**,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로운 자와 매인 자 — 에게, 그리고 젊은이와 늙은이,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전파되어야 하느니라.

143:1.6 (1608.3) “내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 베풀기를 기뻐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봉사가 지루하게 편한 일이라는 생각에 젖지 말라.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것은 영원히 최고의 모험이요 영원을 향하는 험난한 성취이라. 땅에서 하늘나라에 봉사하는 것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감한 남성(男性) 자질을 모두 요구하리라. 너희 가운데 여럿은 이 하늘나라 복음에 충성한 까닭에 죽음을 당하리라. 함께 싸우는 친구들이 있어 너희의 용기가 강화될 때는 육체의 싸움터에서 죽기가 쉽거니와, 인간의 가슴 속에 소중히 여기는 진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온전히 혼자서 목숨을 버리는 데는 더 높고 깊은 형태의 인간다운 용기와 헌신이 요구되느니라.

143:1.7 (1608.4) “오늘날, 믿지 않는 자는 무저항의 복음을 전도하고 폭력을 쓰지 않고 일생을 사는 너희를 비웃을지 모르나, 너희는 이 하늘나라 복음을 진지하게 믿는 자의 긴 대열에서 처음으로 나선 자요, 이 가르침에 영웅답게 헌신함으로 온 인류를 놀라게 하리라. 너희와 충성스러운 너희의 후계자들은 좋은 소식 — **하나님이 아버지**요 사람들이 형제임 — 을 외치며 온 세계로 떠나가리니, 저희가 장래에 보일 것보다 세계의 어느 군대도 더 큰 용기와 용감을 보인 적이 없느니라. 육체의 용기는 가장 낮은 형태의 용감이라. 정신의 용기는 더 높은 종류의 인간다운 용기이나, 가장 높고 지극한 용기는 깊은 영적 실체들을 깨우친 확신에 굳세게 충성하는 것이라. 그러한 용기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영웅다운 정신이라. 너희는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진실로 개인적으로 **사람의 아들**을 아는 동료이라.”

143:1.8 (1608.5) 이것은 그 기회에 **예수**가 하신 말씀의 전부가 아니라 그 연설의 서론이다. **예수**는 이 선언을 확대하고 예를 들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이었다. 이 말씀은 **예수**가 일찍이 열두 사도에게 가장 열심히 하신 연설 중의 하나였다. 주는 뜨거운 감정이 눈에 뜨일 정도로 사도들에게 말씀한 적이 드물었다. 그러나 이것은 뚜렷한 감정과 더불어, 열심히 말씀하신 드문 기회 중의 하나였다.

143:1.9 (1609.1) 사도들이 대중에게 전도하고 개인을 상대로 봉사한 결과는 즉시 나타났다. 바로 그날부터 그들이 전파하는 소식에는 용기가 솟아오르는 새로운 음성이 담겨 있었다. 열두 사도는 하늘나라의 새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정신을 계속 몸에 익혔다. 이날 이후로 계속하여 그들은 다채로운 주의 가르침 중에 소극적 미덕과^[157] 수동적 명령을 전파하는 데 분주하지 않았다.

2. 자제에 대한 교훈

143:2.1 (1609.2) 주는 인간의 자제(自制)를 완전히 통달한 표본이었다. 욕설을 듣고서 욕하지 않았다. 고통받을 때, 괴롭히는 사람에게 위협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적들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올바른 판결에 자신을 맡겼다.

143:2.2 (1609.3) 어느 날 저녁 회의에서, **안드레**는 **예수**께 물었다: “주여,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금욕(禁慾)을 실천해야 하나니까, 아니면 당신이 가르치는 자제를 얻고자 애써야 하리니까? 당신의 가르침과 **요한**의 가르침이 어떤 점에서 다르니이까?” **예수**는 대답했다: “**요한**은 정말로 조상들의 빛과 율법에 따라서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쳤고, 그 길은 자기 반성과 금욕의 종교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자기를 잊고 자제하라는 새 소식을 가지고 오노라.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나에게 드러내신 생명의 길을 너희에게 보이노라.

143:2.3 (1609.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아를 다스리는 자는 한 도시를 점령하는 자보다 크니라. 자제는 사람의 도덕적 성품을 재는 척도요, 영적 성장의 정도를 가리키는 지표이라. 옛 체제 밑에서 너희는 금식하고 기도하였느니라. 영에게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 너희는 믿고 기뻐하라는 가르침을 받느니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옛것은 사라져야 하느니라. 보라, 어떻게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인가 내가 보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속박된 처지를 벗어나 해방된 신분을 얻고, 죽음을 벗어나 영생(永生)을 얻었다는 확신을 너희가 세상에 주어야 하느니라.

143:2.4 (1609.5) “옛 길을 따르면 너희는 참고 복종하고 생활 규칙에 순응하기를 구하느니라. 새 길을 따르면 먼저 **진실의 영**이 너희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네 정신을 항상 영적으로 새롭게 하여 네 마음 속 혼이 강하게 되며,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고 적절하고 완전한 뜻을 확실히 기쁘게 행하는 힘을 부여받느니라. 잊지 말라 —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값진 약속을 개인적으로 믿는 것이 네가 신다운 성품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보장하느니라. 이처럼 너희의 믿음으로, 영이 변화됨으로 너희는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그의 영이 사실로 네 안에 거하느니라. 그런즉 그 영이 네 안에 거하면, 너희는

이제 더 육체에 매인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고 해방된 영의 아들이라. 자아를 구속하는 두려움과 금욕에 노예가 되는 옛 율법 대신에, 영의 새 율법은 자제로 생기는 해방을 너희에게 부여하느니라.

143:2.5 (1609.6) “너희가 나쁜 일을 했을 때, 여러 번, 너희 행위를 악한 자의 탓으로 돌리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성향에 따라서 그릇된 길에 빠졌을 뿐이라. 오래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인간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속이는 성향이 있고, 때로는 지독하게 사악(邪惡)하기까지 하다고 너희에게 이르지 않더냐? 너희가 스스로 속고, 그리하여 어리석은 두려움, 약간의 탐욕, 비굴한 쾌락, 악의, 질투, 아니 복수하려는 증오심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 것이냐!

143:2.6 (1610.1) “육체의 독선적 행위가 아니라 영이 재생함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너희는 믿음으로 정당하게 되고, 두려움과 육체의 금욕이 아니라 은혜로 친교를 얻느니라. 하지만 영에게서 태어난 **아버지**의 자녀들은 늘, 언제나 자아, 그리고 육체의 욕구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 때, 너희는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평화를 가지느니라. 이 하늘의 평화에 이르는 길을 따르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늘 진보하는 아들로써 영원히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예정되느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너희가 완전을 추구하는 동안, 스스로 정신과 육체에서 모든 악을 깨끗이 없애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높은 특권이라.

143:2.7 (1610.2) “너희의 아들 신분은 믿음에 바탕을 두며, 너희는 두려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니라. 너희의 기쁨은 신의 말씀을 신뢰함에서 생기며,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가 현실임을 의심하는 유혹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바로 그 선이 사람들을 참되고 진정한 뉘우침으로 인도하느니라. 자아를 통달하는 비밀은 깃드는 영을 너희가 믿는 것과 밀접히 관계되고 그 영은 늘 사랑으로

일하느니라. 구원하는 이 믿음조차 너희에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니,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이 살아 있는 믿음의 자녀라면, 이제 더 자아의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자아를 다스리는 승리한 주인이요, **하나님**의 해방된 아들이라.

143:2.8 (1610.3) “그러면 아이들아, 너희가 영에게서 태어났다면, 금욕하고 육체의 욕구를 경계하는 생활에 자의식하여 매인 처지에서 벗어나 너희는 언제까지나 구원받으며, 너희는 즐거운 영의 나라로 옮겨지느니라. 거기서부터 너희는 나날의 생활에서 영의 열매를 저절로 맺느니라. 영의 열매는 사람을 고상하게 만드는 즐거운 자제, 아니 땅에서 필사자가 도달하는 — 참된 자아 통달의 — 높이까지 이르는, 가장 높은 종류의 자제의 본질이라.”

3. 오락과 휴식

143:3.1 (1610.4) 이 무렵에 사도와 그 직계 제자인 동료들 사이에서 크게 신경이 곤두서고 감정이 날카로워진 사태가 벌어졌다. 그들은 함께 살고 일하는 데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요한**의 제자들과 순탄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골칫거리가 늘어나고 있었다.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큰 시련이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예수**가 요즘에 하신 말씀은 그들의 정신 상태를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안드레**는 거의 제 정신이 아닌 상태였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 몰랐고, 그래서 문제와 복잡한 일을 가지고 주에게 갔다. 사도의 우두머리가 걱정거리 설명하는 것을 듣고 나서 **예수**는 말했다: “**안드레**야, 사람들이 그렇게 몰두한 단계에 이를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격한 감정을 가지고 관여할 때, 말로 그 곤경에서

사람들을 구해낼 수 없느니라. 네 요청을 들어줄 수 없노라 — 나는 개인의 사회적 문제에 끼어 들지 아니하리라 — 그러나 사흘 동안 쉬고 긴장을 풀면서 너희와 함께 즐기리라.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모두가 나와 함께 **사르타바**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알리라, 거기서 내가 하루나 이틀 동안 쉬기를 바라노라.

143:3.2 (1610.5) “이제 열한 형제 각자에게 가서, 남이 안 보는 데서 이렇게 말해야 하느니라: ‘주가 한동안 쉬고 긴장을 풀려고, 우리만 그와 함께 가기를 바라시느니라. 우리 모두가 요즈음 정신이 많이 시달리고 긴장하였으니, 이 휴일 동안에 우리가 겪은 시련과 곤경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내가 제안하노라. 이 문제에 네가 협조할 것을 내가 기대할 수 있느냐?’ 이 방법으로 형제 각자에게 사사롭게 친히 접근하여라.” 그리고 **안드레**는 지시받은 대로 하였다.

143:3.3 (1611.1) 이것은 각자의 체험 중에서 놀라운 기회였고 그들은 산에 올라갔던 그날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 여행 동안 내내, 그들의 골칫거리에 대하여 거의 한 마디 말도 나오지 않았다. 산 꼭대기에 다다르자 **예수**는 둘레에 그들을 앉히면서 말했다: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휴식의 가치와 긴장 풀기의 효능을 배워야 하느니라. 어떤 뒤엎힌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를 한동안 버려두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다음에 너희가 휴식이나 예배를 마치고 새롭게 돌아갈 때, 더욱 굳은 각오는 말할 것도 없고 더 맑은 정신과 더 믿음직한 손으로 너희 문제와 씨름할 수 있느니라. 게다가 머리와 육체가 쉬는 동안, 문제의 크기와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하느니라.”

143:3.4 (1611.2) 이튿날 **예수**는 열두 사도 각자에게 토론할 주제를 나누어 주었다. 지난 일을 돌이켜 보고 그들의 종교적 일과 관계 없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그날 전부를 썼다. 한낮의 점심으로 빵을 먹을 때, **예수**가 감사를 — 입으로 — 드리는 것조차 소홀히 했을 때, 그들은 한 순간 충격을 받았다. 이때에 주가 그런 형식을 소홀히 함을 처음 보았다.

143:3.5 (1611.3) 산으로 올라갔을 때, **안드레**의 머리는 문제들로 꽉 차 있었다. **요한**은 마음 속에서 지나치게 혼란에 빠져 있었다. **야고보**의 혼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이방인들 사이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기금이 모자라서 가슴을 태우고 있었다. **베드로**는 과로했고 최근에는 여느 때보다 번덕이 심했다. **유다**는 때때로 찾아오는 과민과 이기심에 시달렸다. **시몬**은 애국심과 형제 사랑을 절충하려는 노력으로 특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빌립**은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보고 갈수록 어리둥절하였다. 이방(異邦) 인구와 접촉한 뒤로 **나다니엘**은 유머가 줄어들었고 **토마스**는 심한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었다. 오직 쌍둥이가 정상이었고 흔들리지 않았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것인가 모두가 갈피를 잡지 못했다.

143:3.6 (1611.4) 사흘째에 산 밑에 있는 야영지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인간의 슬한 골칫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급박한 문제들은 과장된 두려움의 산물이요 불안이 확대되어 생겨난 것이라는 중요한 발견을 했다. 그러한 모든 골칫거리는 버려두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훌쩍 떠남으로 그런 문제들이 저절로 풀리도록 버려두었다.

143:3.7 (1611.5) 이 휴일이 끝나고 돌아온 것은 **요한**의 추종자들과 사이가 크게 개선된 기간이 시작되었음을 가리켰다. 생활의 일상적 임무에서 떠나 사흘 동안 휴가를 보낸 결과로, 그들이 모든 사람의 정신 상태가 달라진 것을 눈치채고 신경 과민에서 해방된 것을 바라보았을 때 열두

사도 중 다수가 정말로 기뻐했다. 인간의 접촉이 단조로우면 골칫거리가 크게 불어나고 언제나 문제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

143:3.8 (1611.6) 두 그리스 풍의 도시, **아켈라리스**와 **파사엘리스**에서, 많지 않은 이방인이 복음을 믿었지만, 처음으로 열두 사도는 순전한 이방 인구와 이번에 널리 일하면서 값진 체험을 얻었다. 그 달 중순쯤, 어느 월요일 아침에 **예수**는 **안드레**에게 말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자.” 그들은 **야곱**의 우물 가까이 **시카** 시(市)를 향하여 당장에 길을 떠났다.

4.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143:4.1 (1612.1) 6백 년이 넘도록 **유대** 지방의 **유대인**, 그리고 나중에는 **갈릴리**의 **유대인**도 **사마리아인**과 적대 관계에 있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이 반감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 기원전 7백 년 무렵에, **아씨리아**의 임금 **사르곤**은 **팔레스타인** 중부에서 일어난 폭동을 진압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유대인**을 2만 5천 명이 넘게 포로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거의 같은 수의 **쿿 · 세파르브 · 하마트** 족속의 후손들을 정착하게 하였다. 나중에 **아슈바니팔**은 또 다른 여러 이민단을 **사마리아**에 거주하라고 보냈다.

143:4.2 (1612.2)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종교적 불화는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유대인**이 돌아올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방해하는 일을 하였다. 그들은 나중에 **알렉산더**의 군대를 친절히 도와줌으로 **유대인**들의 기분을 건드렸다. 이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알렉산더**는 **사마리아인**들이 **게리짐** 산에 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야웨**

및 부족 신들을 섬기고,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 체제를 비슷하게 좇아서 희생물을 바쳤다. 적어도 **마카비**의 시절까지 이 예배를 계속했고, 그때 **요한 히르카누스**는 **게리짐** 산에 있는 그들의 성전을 파괴했다. **예수**가 돌아가신 뒤에, **사마리아**인들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사도 **빌립**은 이 옛 **사마리아** 성전 터에서 많은 모임을 가졌다.

143:4.3 (1612.3)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불화는 전통이 오래고 역사(歷史)가 깊다. **알렉산더** 시절 이후로 그들은 갈수록 더 서로 상관하지 않았다. 열두 사도는 **데카폴리스** 지방과 **시리아**에 있는 **그리스** 및 기타 여러 이방인 도시에서 전도하기를 싫어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마리아로 들어가자**”고 **예수**가 말했을 때 그것은 주에게 바치는 충성심을 재는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러나 한 해 남짓 **예수**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그들은 일종의 개인적 충성심을 길렀고 이것은 그의 가르침을 믿는 신앙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도 뛰어넘었다.

5. 시카의 여인

143:5.1 (1612.4) 주와 열두 사도가 **야곱**의 우물에 다다랐을 때, 여행에 지쳤기 때문에 **예수**는 우물가에서 기다렸다. 그동안에 **빌립**은 **시카**에서 먹을 것과 텐트 가져오는 것을 도우려고 사도들을 데리고 갔는데, 사도들이 한동안 이 근처에서 머무를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와 함께 남아 있었을 터이지만, **예수**는 형제들과 함께 가라고 이들에게 부탁하며 말했다: “조금도 내 걱정을 하지 말라, 이 **사마리아인**들은 친절할 것이라. 오직 우리의 형제, **유대인**들이 우리를 해치려 하느니라.” **예수**가 우물가에서

앉아서 사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때는 이 여름 날 저녁, 거의 6시가 되었다.

143:5.2 (1612.5) **야곱**의 우물 물은 **시카**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보다 광물(鑛物)이 적었고, 따라서 마시는 물로 훨씬 높게 쳤다. **예수**는 목이 말랐지만 우물에서 물을 길어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시카**의 어느 여인이 물그릇을 가지고 와서 우물에서 물을 길으려고 준비했을 때 **예수**는 말했다. “내게 물을 다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모습과 옷차림으로 **예수**가 **유대인**인 줄 알았고 말씨로 보아 **갈릴리 유대인**이라 짐작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날다**였고 잘 생긴 인물이었다.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우물가에서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하여 많이 놀랐다. 자존심 있는 남자가 버젓이 여자에게 말 거는 것, 더군다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그 시절에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날다**는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니 어인 일이니이까?” **예수**는 대답했다: “내가 정말로 너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였으나, 네가 알 수만 있다면 생명의 물 한 모금을 달라 내게 청하리라.” 그러자 **날다**가 말했다: “하지만 주여, 당신은 물을 길어 올릴 그릇이 없고 우물은 깊사오이다. 그러니 어디에서 이 생명(生命)의 물을 얻으시나이까?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자기와 아들들과 가축도 그 물을 마셨나이다.”

143:5.3 (1613.1) **예수**는 대답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이 다시 마르려니와 살아 있는 영(靈)의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올라 바로 영생(永生)에 이르는 시원한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날다**가 말했다. “내게 이 물을 주시사 나로 하여금 목도 마르지 않고 물 길으러

여기까지 멀리 오지도 않게 하소서. 게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훌륭한 **유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쁨이 되리이다.”

143:5.4 (1613.2) **날다**는 **예수**가 자기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 여자는 주의 얼굴에서 올바르고 거룩한 사람의 빛을 보았다. 그러나 친절을 흔히 있는 친숙함으로 잘못 생각했고 그 비유를 자기에게 일종의 추파를 던지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 품행이 단정치 않은 여인이었으므로 그 여자는 드러내 놓고 희롱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예수**는 명령하는 음성으로 말했다: “여자여, 가서 네 남편을 찾아 여기로 데려오라.” 이 명령에 **날다**는 정신이 들었다. 주의 친절함을 그릇 판단했음을 깨달았고 자기가 그의 말투를 오해한 것을 알아차렸다. 놀라서 자기가 특별한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머리 속에서 적당한 대답을 더듬으며, 크게 산만하여 말했다. “그러나 주여, 남편을 부를 수 없사오니 남편이 없음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는 말했다: “네가 진실을 말하였으니, 네가 한때는 남편이 있었는데도 싶으나 네가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님이라. 내 말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민 생명의 물을 구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

143:5.5 (1613.3) 이때가 되어서 **날다**는 정신이 맑아졌고 제 정신이 들었다. 그 여자는 전적으로 선택해서 부도덕한 여자는 아니었다. 남편에게 모질게 또 부당하게 버림받았고 막다른 골목에서 어떤 **그리스인**의 아내로서, 하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같이 살기로 하였다. **날다**는 이제 **예수**에게 생각 없이 말한 것을 크게 부끄럽게 느꼈고, 몹시 뉘우치는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말했다: “내 주여, 당신께 버릇없이 말씀드린 것을 뉘우치오니,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든지 아마도 선지자인 것을 깨닫기 때문이나이다.” 주께 직접 개인적으로 도움을 막 구하려고 할

때, 그 여자는 허다한 사람이 그전에도 그후에도 한 것과 같이 행하였다 — 신학과 철학 토론에 주의를 돌림으로 개인이 구원 받는 문제를 피했다. 그 여자는 재빨리 자신의 필요로부터 신학(神學) 논쟁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게리짐** 산을 가리키면서 말을 이었다: “우리의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래도 당신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배해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리이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하나님**을 예배할 바른 장소이나이까?”

143:5.6 (1613.4) **예수**는 그 여자의 혼이 직접 **조물주**와 면밀한 접촉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또한 더 좋은 생명의 길을 알려는 소망이 그 혼 속에 있음을 보았다. 결국, **날다**의 가슴 속에 생명의 물을 바라는 참된 목마름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참을성 있게 다루며 말했다: “여자여, 네게 이르노니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너희가 **아버지**를 예배하지 않을 날이 곧 다가오리라. 그러나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배하나니 여러 이교도 신(神)들의 종교와 이방의 철학이 섞인 것이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누구를 예배하는지 알며, 예배를 한 분의 **하나님**, **야웨**에 집중하여 모든 혼란을 없애 버렸느니라. 그러나 진지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모두 정신적으로, 진실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곧 오리라 — 바로 지금이 그런 때라 — 고 말할 때 나를 믿어야 하나니, 이는 **아버지**가 바로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요, 그를 예배하는 자는 정신적으로 진실하게 예배해야 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또는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 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바로 지금 내미는 이 생명의 물을 네 마음 속에 받아들임으로 너의 구원이 오느니라.”

143:5.7 (1614.1) 그러나 **날다**는 땅에서 자기의 개인 생활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의 처지에 관한 거북한 질문에 대한 논의를 피하려고 다시 한번 애썼다. 한 번 더 일반 종교에 관한 질문을 택하고 말했다: “예 주여,

요한은 **교화자**(敎化者)가 오신다고 설교했는데, 그를 **구원자**라 부를 것이요 그가 오실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언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 **날다**의 말을 막으며, **예수**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143:5.8 (1614.2) 이것은 **예수**가 땅에서 자신이 신의 성품을 지닌 아들임을 처음으로 바로, 분명히 감추지 않고 선언한 것이었다. 그것도 한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순간까지 남자들 눈에 의심스러운 인격을 가진 여자에게 선언하였다. 그러나 신의 눈은, 자신이 원해서 죄를 짓기보다 남이 그 여자에게 죄를 저질렀다고, 그 여자는 지금 구원을 바라는,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구원을 바라는 인간 혼이라고 보았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143:5.9 (1614.3) **날다**가 더 보람 있고 고귀한 생활 방법을 찾으려는 진정한 개인적 소망을 막 말하려 했을 때, 마음 속의 진정한 소망을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열두 사도가 **시카**에서 돌아왔다. **예수**가 이 여자와 함께 — 이 **사마리아** 여자와, 그것도 두 사람만 — 아주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에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랐다. 소모품을 재빨리 저장하고 옆으로 비켰고 아무도 감히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한편 **예수**는 **날다**에게 말했다: “여자여, 길을 가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였느니라. 이제부터 너는 새 인생을 살리라. 생명의 물을 받았으니, 새 기쁨이 네 혼 속에서 솟아나겠고 너는 **최고자**의 딸이 될지니라.” 그 여자는 사도들이 싫어하는 눈치를 채고서, 물동이를 버리고 도시로 달아났다.

143:5.10 (1614.4) 도시로 들어가면서, 만난 모든 사람에게 외쳤다: “**야곱**의 우물로 가라, 빨리 가라,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일찍이 한 일을 모두 내게 일러준 사람을 너희가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사람이 **교화자**일 수 있느냐?” 해가 지기 전에, 큰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야곱의 우물에서 모였다. 그리고 주는 생명의 물, 깃드는 영이 주는 선물에 대하여 그들에게 더 말씀했다.

143:5.11 (1614.5) 사도들은 **예수**가 여자, 그것도 의심스러운 인격을 가진 여자, 아니 부도덕한 여자와도 기꺼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서 받은 충격을 결코 떨쳐 버리지 못했다. 여자, 아니 이른바 부도덕한 여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택할 수 있는 혼을 가졌고, 이로써 **하나님**의 딸이요 영생을 받을 후보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가 사도들에게 가르치기는 무척 어려웠다. 19세기가 지난 뒤에도 많은 사람이 주의 가르침을 깨닫기를 꺼려하는 똑같은 태도를 보인다. 기독교조차 **그리스도**의 일생의 진실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실을 중심으로 끈질기게 쌓아 올렸다. 세상은 **예수**의 비극적이고 슬픈 죽음보다 행복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의 삶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143:5.12 (1614.6) **날다**는 이튿날 이 이야기를 전부 사도 **요한**에게 일러주었지만 그는 다른 사도들에게 다 밝히지 않았고 **예수**는 열두 사도에게 이 일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지 않았다.

143:5.13 (1615.1) **날다**는 **예수**가 “내가 일찍이 행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일러주었다고 **요한**에게 말했다. 여러 번 **요한**은 **날다**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에 관하여 **예수**께 묻고 싶었지만,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예수**는 그 여자에 관하여 오직 한 가지를 일러주었지만, 눈을 들여다보고 그 여자를 다룬 태도는 한 순간에 **날다**의 머리 속에 얼룩진 생활 전부를 파노라마처럼 머리 속에서 다시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과거의 생활을 이렇게 자신이 밝힌 것을 모두 주의 눈길과 말씀과 연결하였다. **예수**는 그 여자에게 다섯 남편이 있다고 이르지 않았다. 그 여자는 남편에게 버림 받은 뒤에 다른 네 남자와 살았다. 이것은 모든 과거와 함께,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머리 속에 아주 선하게 살아났고, 그래서 **예수**가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정말로 자기에게 일러주었다고 나중에 **요한**에게 되풀이하였다.

6. 사마리아의 부흥

143:6.1 (1615.2) **날다가 시카에서 예수**를 보라고 군중을 이끌어낸 날 저녁에, 열두 사도는 먹을 것을 가지고 막 돌아왔다.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전에 **예수**에게 함께 드시라고 청했는데, 그들이 하루 종일 끼니를 걸러서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어둠이 곧 다가올 것을 알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전에 말씀할 결심을 버리지 않았다. 군중에게 말씀하기 전에 **예수**에게 한 입 잡수시라고 **안드레**가 설득하려고 했을 때 **예수**는 말했다 “나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고기가 있노라.” 이 말을 듣자 사도들끼리 말했다: “누군가 그에게 무슨 잡수실 것을 가져왔느냐? 도대체 그 여자가 **예수**께 마실 것만 아니라 잡수실 것도 드렸느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듣자,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전에 **예수**는 옆으로 머리를 돌려 열두 사도에게 말했다: “내가 먹을 고기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 너희는 이제 더 추수할 때까지 시간이 어느만큼 있다고 말하지 말라. **사마리아**의 한 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판이 추수하도록 이미 허영게 되었느니라. 거두는 자는 삯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이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 결과로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씨 뿌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씀이 여기서 참인 까닭이라.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곳에서 거두라고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남들이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하던 일을 막 시작하려 하느니라.” 이 말씀은 **세레자 요한**이 전도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143:6.2 (1615.3) **예수**와 사도들은 **시카**로 들어갔고 **게리짐** 산에서 캠프를 세우기 전에 이틀 동안 전도했다. **시카**에서 많은 주민이 복음을 믿고 세례받기를 청했지만 **예수**의 사도들은 아직 세례를 주지 않았다.

143:6.3 (1615.4) **게리짐** 산에서 야영하던 첫날 밤에 사도들은 **야곱**의 우물에서 그 여자에게 보인 태도 때문에 **예수**가 꾸짖으리라 기대했으나 그 문제에 대하여 아무 말도 없었다. 그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심인 실체들”에 관하여 기억에 남을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었다. 어떤 종교에서도 가치가 한 쪽으로 치우치도록 버려두고, 사람의 신학에서 진실 대신에 사실이 자리를 차지하도록 버려두기가 너무나 쉽다. 십자가의 사실은 후일에 기독교의 바로 그 핵심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종교의 핵심 진실이 아니다.

143:6.4 (1615.5) **게리짐** 산에서 **예수**가 가르친 말씀의 주제는, 그가 (**예수**가) 형제요 친구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이자 친구로서 보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진실이 이 신성한 두 관계를 관찰한 것에 대하여 가장 큰 선언인 것같이, 사랑은 세상에서 — 우주에서 — 가장 큰 관계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143:6.5 (1616.1) **예수**가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렇게 자신을 한껏 선언한 것은 그가 안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도하려고 **사마리아**의 심장부로 그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143:6.6 (1616.2) **예수**와 열두 사도는 8월말까지 **게리짐** 산에서 야영했다. 여러 도시에서 낮에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좋은 하늘나라 소식 —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 — 을 전도하고 밤에는 야영지에서 지냈다. 사마리아의 이 여러 도시에서 예수와 열두 사도가 한 일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많은 사람을 얻게 하였고, **예수**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예루살렘**에서 신자들을 모질게 박해함으로 사도들이 땅 끝까지 흩어지고 나서, 이 지역에서 **빌립**이 놀라운 일을 하도록 길을 예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7. 기도와 예배에 대한 가르침

143:7.1 (1616.3) **게리짐** 산에서 저녁 회의가 있을 때, **예수**는 큰 진리를 많이 가르쳤고 특히 다음을 강조했다:

143:7.2 (1616.4) 참된 종교는 **창조자**와 자의식하는 관계를 가지면서 생기는 개별 혼의 행위이다. 조직된 종교는, 사람이 개별 신자의 예배를 사회적 활동으로 만드는 시도이다.

143:7.3 (1616.5) 예배는 — 영적인 것을 숙고하는 것 — 봉사, 즉 물질적 현실과 접촉하는 것과 번갈아 있어야 한다. 일하고 노는 것을 번갈아 해야 하며, 종교는 유머로 균형을 얻어야 한다. 깊은 철학은 리듬 있는 시(詩)로 긴장을 풀어야 한다. 생활의 긴장 — 인격이 시간 속에서 받는 긴장 — 은 예배가 주는 휴식으로 풀어야 한다. 우주에서 인격이 고립되는 두려움에서 생기는 불안한 느낌은 **아버지**를 믿고 숙고함으로, 그리고 **최상위**를 깨달으려고 애씀으로 중화(中和)되어야 한다.

143:7.4 (1616.6) 기도는 사람에게 머리를 덜 쓰고 더욱 깨닫게 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기도는 지식을 늘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찰력을 키우도록 고안되어 있다.

143:7.5 (1616.7) 예배를 드리는 의도는 앞으로 개선된 생활을 예상하고 다음에 이 새로운 영적 의미를 현재 닥친 생활에 다시 비쳐 보는 것이다. 기도는 영적 자양분을 주지만 예배는 신성하게 창조하는 성향이 있다.

143:7.6 (1616.8) 예배는 여러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나인 분을 바라보는 기술이다. 예배는 혼이 물질 우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를 재고, 또한 혼이 동시에 모든 창조의 영적 실체들에 얼마나 안전하게 붙어 있는가 재는 척도이다.

143:7.7 (1616.9) 기도는 자아를 생각하게 한다 — 승고한 사고(思考)이다. 예배는 자아를 잊는 것이다 — 초월 사고이다. 예배는 힘 안 드는 집중이요, 혼의 참되고 이상적인 휴식, 일종의 편안한 영적 노력이다.

143:7.8 (1616.10) 예배는 한 부분이 전체와, 그리고 유한자가 **무한자**와, 아들이 **아버지**와 일체가 되는 행위요, 시간이 영원과 발걸음을 맞추는 행위이다. 예배는 아들이 신다운 **아버지**와 몸소 친교하는 행위요, 인간의 혼과 영이 신선하고 창조적인 태도, 친근하고 열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143:7.9 (1616.11) 사도들은 야영지에서 그가 가르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깨달았지만 다른 세상들은 그 가르침을 깨달았고 땅에서 다른

세대들도 그럴 것이다.

[157]: 143:1.9 나쁜 짓을 하지 않는 미덕.
